***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5. 6. 17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진행된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 해저케이블 우선협상공급합의서(PSA) 체결식 사진. 좌측부터 권지안 ㈜해송해상풍력발전 공급망전략담당(상무), 조나단 스핑크 COP코리아 대표, 박승기 LS전선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상무), 이성우 LS전선 에너지국내영업2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문의** | **주호찬 차장 (010-8553-7904 ,** [**hjoo3@lscns.com**](mailto:hjoo3@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전선, 국내 최대 규모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  **해저케이블 공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LS전선-마린솔루션, 해저케이블 공급·시공 우협 선정**  **■ CIP·COP와 축적된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 해상풍력 공급망 경쟁력 강화, 국내 산업 활성화 기여**  LS전선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 사업인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해저케이블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LS마린솔루션도 6월 12일 같은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시공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설계부터 생산, 시공까지 전 공정을 통합 수행하게 된다.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 504MW급 해상풍력 단지 2기를 조성, 총 1GW급 규모로 추진되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다. 이는 국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인 CIP(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가 투자 및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산하 해상풍력 개발사인 COP(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가 인허가·기술 개발 등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LS전선은 CIP·COP와 협력해 대만 창팡·시다오(Changfang·Xidao, 595MW), 종넝(Zhong Neng, 295MW) 해상풍력과 국내 전남해상풍력 1단지(96MW)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대만 펑미아오(Fengmiao, 500MW), 국내 태안 해상풍력(504MW)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LS전선은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술 경험을 기반으로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 또한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내외 해상풍력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기 LS전선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은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나단 스핑크 COP코리아 대표는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국내∙외 프로젝트를 통해 다년간 협업을 쌓아 온 LS전선과의 협약의 연장선”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공급망 기업들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권지안 ㈜해송해상풍력발전 공급망전략담당 상무는 “이번 협약은 해상풍력 산업의 국산화 및 공급망 안정화 전략 실현에 중요한 이정표”라며, “LS전선 뿐만 아니라 국내 공급망과의 협업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 및 국내 기술 경쟁력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